

보도시점 : 2026. 7. 30.(목) 06:00 이후(7. 30.(목) 석간) / 배포 : 2026. 7. 29.(수)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서비스 9월 1일부터 시행

【관련 국정과제】 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 서울시 기후동행패스, 모두의카드 가입... 서울 청년 유형 만 39세까지 확대
- 기존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카드 재발급 없이 자동 혜택 적용
- 기후동행카드 30일권 1개월 연장, 8.31까지 충전·9.29까지 이용(후불 9.30)
- 7월 29일 가입자 600만 명 돌파, 계속되는 모두의카드 환급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이하 서울시)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운영 종료(8월 말) 일정에 맞춰,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를 9월 1일 정식 출시한다.

-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모두의 카드에 서울시민을 위한 청년 유형 확대 등 지역 특화 혜택을 더한 서비스다.
- 대광위는 현재 7개 지방정부(경기·인천·부산·세종·광주·경남·울산)와 지방정부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8번째로 모두의카드 지역 특화사업에 참여한다.
- 서울시는 특화서비스로 청년 유형 연령 기준 연장(만 19~34세 → 만 19~39세)을 요청하였고, 시스템 연계 및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만 35세~39세 서울시민도 청년 유형의 환급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 (정률형) 기본유형 20%, 청년유형 30% 환급률 적용

(정액형) 환급기준금액으로 기본유형은 62,000원, 청년유형은 55,000원 적용

- 향후 기존 기후동행카드 혜택인 세대군인 할인 연령 연장(~만 42세), 따릉이 할인 연계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 모두의카드는 정률형과 정액형 중 가장 유리한 방식을 자동 적용하는 환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62,000원 이하 대중교통 이용금액도 정률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 다자녀, 어르신, 저소득층에게 차등을 두어 환급혜택을 지원 중이며, 특히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추경 혜택을 제공 중이다.

① 정률형

구분	당초 환급률	추경 한시적용 환급률	
		기타 시간	출퇴근 시차 시간*
일반 국민	20%	20%	50%
청년·2자녀·어르신	30%	30%	60%
3자녀 이상	50%	50%	80%
저소득층	53.3%	53.3%	83.3%

* 출퇴근 시차시간 : 5:30-6:30, 9:00-10:00, 16:00-17:00, 19:00-20:00

② 정액형

(단위: 만원)

구분	일반 국민				청년·2자녀·어르신				3자녀 이상·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수도권	6.2	3	10	5	5.5	2.5	9	4.5	4.5	2.2	8	4
일반 지방권	5.5	2.7	9.5	4.7	5	2.3	8.5	4.2	4	2	7.5	3.7
우대 지원지역	5	2.5	9	4.5	4.5	2.1	8	4	3.5	1.7	7	3.5
특별 지원지역	4.5	2.2	8.5	4.2	4	2	7.5	3.7	3	1.5	6.5	3.2

※ 추경 혜택은 4~9월 6개월간 한시 적용

□ 이미 모두의카드(K-패스)를 이용 중인 서울시민은 카드를 추가로 발급 받지 않아도 서울시 특화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 만 35~39세 서울시민에게는 청년 유형 적용

□ 서울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종료와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시행 사이에 시민 불편이나 혜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운영을 한 달 연장한다.

* 기존 선불 기후동행카드의 마지막 충전을 8.31로 변경하고, 선불 기후동행카드는 9.29까지,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30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연장

- 한편, 지난 7월 29일 모두의카드 가입자가 600만 명을 돌파했다. 4월 가입자 500만 명 달성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입자가 100만 명 증가했다.

* ('25.10.22.) 가입자 400만 명 → ('26.4.12.) 500만 명 → ('26.7.29.) 600만 명

-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후동행카드 종료에 따른 시민들의 혜택 공백을 차단하고 이용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며

○ 이어 “지난 7월 29일 모두의카드 가입자가 600만 명을 돌파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8월 19일까지 '600만 기념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기후동행패스의 9.1 출시는 서울시와 대광위가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력으로 조속한 출시를 이뤄낸 값진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기후동행패스’의 지속적인 혜택 확대를 통해 서울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책임자	과 장	천재민 (044-201-5080)
		담당자	사무관	손명진 (044-201-5088)
			주무관	김윤희 (044-201-5084)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주선 (02-2133-2210)
		담당자	팀 장	이규용 (02-2133-2591)
			주무관	정창욱 (02-2133-2226)

참 고

'모두의카드' 기반 지방정부 특화사업 현황

- **(서울)**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 청년 범위 확대 ('26.9.1.~)
 - * 35~39세까지 '청년 유형'으로 인정
- **(경기)**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환급률 및 환급기준 완화 등 추가 혜택을 제공 ('24.5월~)
 - * 35~39세까지 '청년 유형'으로 인정
- **(인천)**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환급률 및 환급기준 완화 등 추가* 혜택 제공('24.5월~)
 - * (청년) 35~39세도 '청년 유형'으로 인정,
(자녀) 1자녀 환급률 50% 2자녀 이상 환급률 70% (i+차비드림)
- **(부산)** 동백패스* 이용자가 '모두의카드' 가입 시 두 사업의 혜택을 자동으로 비교하여 더 큰 혜택 방식으로 환급('24.8월~)
 - * 부산 대중교통 이용금액 월4.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을 최대 4.5만원까지 지역화폐로 환급
- **(세종)** 月 2만원 선결제 시 세종·충청권 대중교통 5만원까지 무료 이용, 5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모두의카드' 혜택 적용('24.9월~)
- **(광주)**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광주시민 대상 청년 범위 확대, 저소득층 환급률 상향 등 추가* 혜택 제공('25.1월~)
 - * 35~39세까지 청년으로 인정, 65세이상 +30%p(→ 총 50%), 저소득층 +11%p(→ 총 64%)
- **(경남)**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남도민 대상 청년 범위 확대, 저소득층 환급률 상향 등 추가* 혜택 제공('25.1월~)
 - * 35~39세까지 청년으로 인정, 저소득층 +47%p(→ 총 100%), 75세이상 어르신 최소 횟수제한 폐지(월 1회 이상 이용시)·추가 혜택 +70%p(→ 총 100%)
- **(울산)** 청년 범위 확대(34→39세), 저소득층 100% 환급 등('25.7월~)

〈 지자체 사업별 비교 〉

구분	모두의 카드	기후동행 패스	경기 패스	인천 i-패스	동백 패스	이음 패스	광주 G패스	경남 패스	U 패스
저소득	53.3%	좌동					64%	100%	100%
추가 혜택	기타	-	청년 19~39세	· 청년 19~39세 · 자녀 1자녀 50% 2자녀 70%	실부담 4.5만원	5만원까지 실부담 2만원	청년 19~39세		
							65세 ↑50%	75세 ↑100%	-